

# 성경해석학

저자: 리차드 프렛 2 세(Th.D., Harvard)외 다수

역자: 이창배 (Ph.D., UCLA)

번역 후원: 이유선 (Daughter)

제 1 강

## 성경해석학 서론



THIRD MILLENNIUM

MINISTRIES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 2013 b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for profit, except in brief quotations for the purposes of review, comment, or scholarship,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nc., 316 Live Oaks Blvd., Casselberry, Florida 32707.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Copyright © 1973, 1978, 1984, 2011 International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of Zondervan Bible Publishers.

### **ABOUT THIRD MILLENNIUM MINISTRIES**

Founded in 1997,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s a nonprofit Christian organization dedicated to providing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In response to the growing global need for sound, biblically-based Christian leadership training, we are building a user-friendly, donor-supported, multimedia seminary curriculum in five major languages (English, Spanish, Russian, Mandarin Chinese, and Arabic) and distributing it freely to those who need it most, primarily Christian leaders who have no access to, or cannot afford, traditional education. All lessons are written, designed, and produced in-house, and are similar in style and quality to those on the History Channel<sup>®</sup>. This unparalleled, cost-effective method for training Christian leaders has proven to be very effective throughout the world. We have won Telly Awards for outstanding video production in Education and Use of Animation, and our curriculum is currently used in more than 192 countries. Third Millennium materials take the form of DVD, print, Internet streaming, satellite television transmission, and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and to learn how you can get involved, please visit <http://thirdmill.org>.

# 성경해석학

## 제 1 강 성경해석학 서론

### 목차

<b>I. 서론(Introduction)</b> .....	<b>1</b>
<b>II. 용어(Terminology)</b> .....	<b>1</b>
A. 성경해석학(Biblical Hermeneutics)	2
B. 해석의 과정(Hermeneutical Processes)	3
1. 준비(Preparation)	3
2. 연구(Investigation)	4
3. 적용(Application)	4
<b>III. 과학적 해석학(Scientific Hermeneutics)</b> .....	<b>5</b>
A. 성경적 근원(Biblical Roots)	5
B. 예들(Examples)	6
C. 우선 사항들(Priorities)	8
1. 준비(Preparation)	8
2. 연구(Investigation)	9
3. 적용(Application)	9
<b>IV. 경건적 해석학(Devotional Hermeneutics)</b> .....	<b>10</b>
A. 성경적 근원(Biblical Roots)	11
B. 예들(Examples)	12
C. 우선 사항들(Priorities)	14
1. 준비(Preparation)	15
2. 연구(Investigation)	16
3. 적용(Application)	17
<b>V. 결론(Conclusion)</b> .....	<b>18</b>

# 성경해석학

## (He Gave Us Scripture: Foundations of Interpretation)

### 제 1 강 성경해석학 서론(Introduction to Biblical Hermeneutics)

#### I. 서론(INTRODUCTION)

우리 모두는 어린 아이들이 자주 자신이 실제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안다. 그들은 어머니가 요리하는 것을 보고 조금 돕고 나서 스스로 요리를 할 만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아버지가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한두 번 흉내를 내보고 아버지가 아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이르면 통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상상했던 것보다 배울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는다. We all know that young children often think they know a lot more than they really do. They watch their mothers cook, help a little bit, and assume that they know enough to do it on their own. They watch their fathers do their work, they play at it once or twice, and they think they know everything their fathers know. But at some point, children usually find out that they have much more to learn than they ever imagined.

불행하게도, 어른들도 자주 성경을 해석하는 일과 같은 중요한 일에 있어서조차도 비슷한 실수를 저지른다. 우리 중 대부분은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다. 우리 중 일부는 수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관하여 충분히 알므로 바로 나아가 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성경 해석은 실제보다 훨씬 더 간단해 보일 수 있는 일들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수반되는 것에 관하여 주의깊게 생각해 볼 시간을 갖게 되면, 자주 우리는 상상했던 것보다 배워야 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Unfortunately, adults often make the same mistake, even when it comes to something as important as interpreting the Bible. Most of us read our Bibles regularly; some of us have done so for many years. So, we often assume that we know enough about interpreting the Scriptures to just go ahead and do it. But biblical interpretation is one of those things that can seem much simpler than it really is. And when we take time to reflect carefully on what interpreting the Bible entails, we often find that we have much more to learn than we ever imagined.

이 강의는 성경해석학(*He Gave Us Scripture: Foundations of Interpretation*)이란 강좌의 첫번째 강의이다. 이 강좌에서 우리는 성경 해석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관점들을 탐구하고, 성경을 이해할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킬 방법들을 연구할 것이다. 이 강의의 제목은 “성경해석학 서론”이다. 이 강의는 건전하고 학구적인 성경 해석을 위한 기본적인 체계에 대하여 안내할 것이다. This is the first lesson in our series *He Gave Us Scripture: Foundations of Interpretation*. In this series, we'll explore several crucial outlooks on biblical interpretation and investigate ways to improve our ability to understand the Bible. We've entitled this lesson “Introduction to Biblical Hermeneutics.” This lesson will introduce a basic framework for sound and scholarly biblical interpretation.

우리의 성경해석학 서론은 세 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분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몇가지 중요한 용어들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주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성경의 학구적인 해석을 특징짓는 “과학적” 해석학을 탐구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전통적인 학문적 접근들과 결부시켜 “경건적” 해석학을 사용하는 일의 중요성을 살필 것이다. 그럼 먼저 몇가지 중요한 용어들을 살펴보자. Our introduction to biblical hermeneutics will divide into three main parts. First, we'll gain an orientation to our subject by introducing some important terminology. Second, we'll explore “scientific” approaches to hermeneutics that characterize scholarly interpretation of the Bible. And third, we'll look at the value of employing devotional hermeneutics in conjunction with traditional academic approaches. Let's begin with some important terminology.

## II. 용어(TERMINOLOGY)

어느 토론에서든 핵심 용어들을 오해하는 것은 혼동의 커다란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강의를 위해 몇가지 용어를 소개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성경해석학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룰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해석의 세 가지 과정을 살필 것이다. 그럼 먼저 성경해석학의 개념을 살펴보자. Misunderstanding key terminology can be a big source of confusion in any discussion. So we'll introduce several terms for our study. First, we'll touch on what we mean by biblical hermeneutics. And second, we'll look at three hermeneutical processes. Let's look first at the concept of biblical hermeneutics.

### A. 성경해석학(Biblical Hermeneutics)

“해석학”이란 단어는 신학 연구와 성경 연구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해석학”이란 단어가

신화에서 신들의 사자 역할을 하는 “헤르메스”를 포함한 헬라어 단어군에서 유래한 것임을 알아차릴 것이다. “해석학”이란 단어 자체는 “해석하다” 혹은 “설명하다”라는 뜻을 갖는 동사 [헤르메뉴오]와 관련된 헬라어 단어군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학을 언급할 때 광의적으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메시지 혹은 정보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을 염두에 둔다. “Hermeneutics” is a common word in theological and biblical studies, but we don’t use it often in our daily lives. Many of us will notice that the word “hermeneutics” derives from the family of Greek terms that includes the name “Hermes,” the mythological messenger of the gods. The word itself derives from a family of Greek words related to the verb *hermeneuo*, which means “interpret” or “explain.” So, broadly speaking when we refer to hermeneutics, we have in mind the interpretation or explanation of some kind of message or communication.

프리드리히 쉐라이어마허(1768-1834)는 자주 현대 해석학의 아버지로 불리운다. 1819 년에 그는 모든 문학의 이해를 위한 통일된 이론 곧 “일반 해석학”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했다. 그는 주제들이 다를 때 그것들 나름대로의 특수한 해석학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해석학은 공통적인 해석의 방법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riedrich Schleiermacher, who lived from 1768 to 1834, is often called the father of modern hermeneutics. In 1819 he spoke of the need for “general hermeneutics,” a unified theory for understanding all literature. He acknowledged that we should approach different subjects with their own special hermeneutics, but he argued that all hermeneutics should share a common method of interpretation.

20 세기 말경에 이르러 해석의 과정들이 많은 연구 분야들의 중요한 국면이 되었기 때문에 선도하는 학자들은 일반 해석학에 대한 필요성을 깨달았다. 최근에는 해석학적 논의들이 철학, 문학, 그리고 예술에 나타나고 있다. 해석학은 심리학, 사회학, 그리고 심지어 물리학과 생물학과 같은 분야에서도 유용하다. 이러한 확장이 일어난 것은 이런 분야들의 많은 지도급 인사들이 그들의 학과들에 그들이 연구하는 대상들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음을 더 많이 의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By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leading scholars saw the need for general hermeneutics because the processes of interpretation had become an important facet of many fields of study. Today, hermeneutical discussions appear in philosophy, literature and the arts. Hermeneutics is also useful in psychology, sociology, and even fields like physics and biology. This expansion has occurred

because many leading figures in these fields have become more aware of how much their disciplines involve interpreting the meaning of the objects that they study.

본 강의의 제목이 암시하듯이 우리의 주된 관심은 성경의 의미와 의의를 해석하는 학문 곧 성경해석학에 있다. 당신이 성경을 읽는다면 그때 당신은 적어도 비공식적으로 이미 성경해석학에 스스로 관여한 셈이 된다. 성경에 대한 비공식적 접근들이 커다란 가치가 있으므로 이번 강의들은 우리 대부분이 이미 이해하고 있는 것을 발판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일상적인 해석학을 넘어 학문적이고 학구적인 성경 해석의 최전선으로 나아가는 여러 문제들을 탐구할 것이다. As the title of this lesson suggests, we're primarily interested in biblical hermeneutics, the study of interpreting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Scripture. If you've ever read the Scriptures, then you've involved yourself in biblical hermeneutics, at least informally. Informal approaches to the Bible are of great value, and these lessons will build on what most of us already understand. But we'll also move beyond informal hermeneutics and explore the kinds of issues that move to the foreground in academic, scholarly interpretation of the Bible.

(글로도[Mike Glodo] 목사) 일반 해석학과 성경해석학을 구별해서 비교하는 것은 많은 도움을 준다. 성경이 일반 해석학과 공통적으로 갖는 개념들을 들면, 동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품사란 무엇인가, 문법, 구문론 등은 무엇인가, 저자가 어떤 단어들을 썼을 때 그가 의미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가 있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책이다. 그러므로 주로 성경해석학에만 관련된 특수한 규칙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결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없다. 이로 인해 그 나름대로 독특한 성경해석학의 한 특별한 측면이 생긴다. 풀어서 말하면, 성경의 모든 데이타가 서로 모순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의 다양성을 말할 뿐만 아니라 서로 일치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통일성을 말한다는 가정 아래 우리가 그것들을 서로 연관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It's helpful to make a distinction and a comparison between general hermeneutics and biblical hermeneutics. The Bible has in common with general hermeneutics the ideas of what does a verb do? What are parts of speech? What

is grammar, syntax, and so forth? How do we determine what an author meant when he or she wrote those words? But there are particular rules that pertain to biblical hermeneutics principally because the Bible claims to be the Word of God, and as such, it is authoritative, and it reveals God to us. And since God is one and God is truth, the Bible never contradicts itself. And so, one particular aspect of biblical hermeneutics that's unique is that we try to seek to relate all the data of Scripture together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y don't contradict one another, but rather they speak — while of the variety of God's revelation — they also speak one in agreement with itself. [Cindy Sawyer's paraphrase: "... but even though Scripture speaks of the variety of God's revelation, everything it says is still in agreement with everything else it says."]

— Rev. Mike Glodo

지금까지 살핀대로 성경해석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염두에 두고서 두번째 중요한 용어인 해석의 과정들 곧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따르는 주요 과정들을 살펴보자. Keeping in mind what we mean by biblical hermeneutics, we should turn to a second important term, hermeneutical processes — the main procedures we follow as we interpret the Bible.

## **B. 해석의 과정(Hermeneutical Processes)**

이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 내내 우리는 해석의 세 가지 주요 과정인 준비와 연구와 적용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이 과정들은 성경 해석에 매우 본질적이므로 이 강좌의 매 강의는 이 세 범주 중의 하나에 속할 것이다. 그럼 먼저 준비에 대하여 살펴보자. Throughout this series, we'll speak of three main hermeneutical processes: preparation, investigation, and application. These processes are so essential to biblical interpretation that each lesson in this series will fall into one of these three categories. Let's look first at preparation.

### **1. 준비(Preparation)**

준비라는 해석의 과정은 우리가 성경의 어떤 부분에 대한 해석을 시작하기 전에 일어난다. 말할 필요조차 없지만,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되풀이해서 읽고 연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해서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주 중요한 의미에서



준비는 회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무도 백지 상태로 성경을 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개념들, 행위들, 감정들에 영향을 받으며 성경을 접근한다. 실감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영향을 미치는 많은 것들이 이미 우리로 성경을 잘 다루도록 준비시켜 주었지만,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것들은 건전한 성경 해석에 장애물을 조성해 놓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이번 강의들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한 우리 자신을 잘 준비시키는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The hermeneutical process of preparation takes place before we begin to interpret a portion of Scripture. And of course, this means that we prepare repeatedly because we read and study the Bible over and over. In a very important sense, preparation is inescapable because no one ever comes to the Bible as a *tabula rasa* — a blank slate. We all approach the Scriptures influenced by an assortment of concepts, behaviors and emotions. Whether we realize it or not, every time we begin to read the Bible, many influences have already prepared us for handling the Scriptures well, but other influences have created obstacles to sound biblical interpretation. For this reason, these lessons will give deliberate attention to preparing ourselves as well as we can for interpreting the Bible.

(브래머[Stephen J. Bramer] 박사) 나는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하거나 아니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 .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고된 과업일 수 있다. 우리가 성령님을 경청하며 성경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우리가 탐구해야 할 세부 사항들이 있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수많은 세부 사항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도구들을 갖추는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쓴 좋은 자료를 갖추는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며 그분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자유를 드리는 준비가 필요하다. . . 당신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하고, 당신 자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하고, 그 목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려고 해야 할 것이다. I think there's a lot of things we do to prepare ourselves, or should do to prepare ourselves, to study Scripture... Studying Scripture can be hard work. There are details that we need to examine, and there are many, many details that we need to remember as we're going through the study of Scripture, as well

as listening to the Spirit of God. And so we need to prepare by having good tools. We need to prepare by having good material written by others. We need to prepare by praying and allowing the Holy Spirit, giving him freedom to work in our lives... You're going to be listening for God's voice, and listening for God's voice for your own life, and then to pass that voice on to others as well.

— Dr. Stephen J. Bramer

지금까지 준비라는 해석의 과정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연구라는 과정을 살필 것이다. 연구에 관하여 말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은 성경 본문의 원래의 의미에 집중하는 것이다. In addition to the hermeneutical process of preparation, we'll also explore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When we speak of investigation we have in mind concentrating on the original meaning of a biblical passage.

## 2. 연구(Investigation)

본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현 세상을 남겨 두고 성경 본문이 처음 쓰여졌을 때 그것이 의미한 바를 파악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연구의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저자들에 의해 의도되었던 원래의 의미와 성경 문헌 자체와 성경의 첫번째 청중에게 관심을 집중한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원래의 의미를 다룰 수밖에 없다. Essentially, when we investigate the Scriptures, we do our best to leave our modern world behind and grasp the meaning of portions of the Bible when they were first written.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we focus on the original meaning intended by God and the Bible's human authors, on the biblical documents themselves, and on Scriptures' first audiences. In many respects, whenever we read Scripture, we can't avoid dealing, to some extent, with original meaning.

예를 들어 우리가 원문 성경을 탐구한다면, 우리는 고대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본문의 언어적 관습들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성경의 현대 번역본에 의존할지라도, 그 번역본은 용어들과 문법적 표현들의 고대 의미들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들과 다른 많은 관점들에서 성경 본문의 원래 의미는 그것의 해석에 항상 결정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구의 과정에도 매우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For instance, if we explore the Bible in its original languages,

we have to take into account the linguistic conventions of ancient Hebrew, Aramaic and Greek texts. Even if we rely on a modern translation of the Bible, that translation is based on assessments of the ancient meanings of terms and grammatical expressions. In these and many other ways, the original meaning of a biblical passage is always crucial to its interpretation. So, we must also give a great deal of attention to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해석의 과정은 준비와 연구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적용이란 과정도 수반한다. Hermeneutical processes not only include preparation and investigation, but they also entail the process of application.

### **3. 적용(Application)**

간단히 말하면 적용이란 원래의 의미를 현대의 청중에게 적실하게 연결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래의 의미를 이해하자마자 우리는 말하자면 수천년을 지나서 우리의 현 상황으로 다가온다. 적용에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방식들을 숙고한다. In simple terms, application amounts to appropriately connecting original meaning to contemporary audiences. Once we've understood the original meaning, we travel, as it were, through the millennia to our modern situation. In application, we reflect on the ways the Scriptures should apply to us as the people of God.

해석의 다른 과정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용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단지 한 성경 단락의 피상적인 이해를 가질 때조차도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을 우리의 사고에 여전히 적용한다. 물론 성경은 성경을 이해하면서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위선에 대하여 경고한다. 그러므로 이 강좌에서 우리는 성경을 신중하고 철저하게 적용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As with the other hermeneutical processes, it's impossible to avoid application completely. Even when we merely gain superficial understanding of a biblical passage, we still apply it, to some degree, to our thinking. Of course, the Scriptures warn against the hypocrisy of understanding the Bible and not obeying it. So, in this series we'll give a lot of attention to applying the Scriptures deliberately and thoroughly.

우리는 이 강의들이 거듭될수록 준비와 연구와 적용이 매우 상호 의존적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느 한 과정에서 잘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과정들에서도 잘 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 물론 모두가 다른 성향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로 우리는 이런 과정들의 하나 혹은 둘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준비와

연구와 적용의 상호 의존성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과정 모두에서 우리의 기술을 연마할 것을 상기시킨다. As we go through these lessons, we'll see that preparation, investigation and application are highly interdependent processes. We can only do well in one process when we're also doing well in the others. Of course, everyone has different inclinations and abilities, and as a result we tend to stress only one or two of these processes. But the interdependence of preparation, investigation and application reminds us to develop our skills in all three areas.

지금까지 성경해석학의 서론격으로 몇가지 중요한 용어들을 설명하였으므로, 이제 우리는 두번째 주요 주제인 과학적 해석학 곧 성경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점점 더 많이 성경의 해석을 과학적 훈련처럼 접근해 온 방식을 살필 것이다. Now that we've explained some important terminology in our Introduction to Biblical Hermeneutics, we should turn to our second main topic: scientific hermeneutics — how biblical scholars over the centuries have approached the interpretation of Scripture more and more like a scientific exercise.

### **III. 과학적 해석학(SCIENTIFIC HERMENEUTICS)**

성경해석학은 어느 정도까지는 항상 과학적 특색을 지녀왔고 이러한 경향은 다른 많은 학과목에서처럼 수천년을 걸쳐 발전해왔다. 이러한 발전들에 대한 이유는 상당히 자명하다. 성경은 수천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의해 쓰여졌다. 그래서 많은 점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고대 세계의 다른 문헌들처럼 다루는 것은 옳은 일이다. 성경을 그것의 역사적 맥락에서 다룰 때 학자들은 자주 고고학, 역사, 인류학, 사회학, 그리고 언어학과 같은 학과들로부터 정보를 얻어 왔다. 이런 노력과 다른 과학적 노력에서처럼 성경을 학문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은 사실적인, 곧 합리적인, 과학적 방법들을 성경에 적용해 왔다. To one degree or another, biblical hermeneutics has always had something of a scientific flavor, and this tendency has grown over the millennia, much like it has in many other disciplines. The reason for these developments is plain enough. The Bible was written by people living thousands of years ago. So, in many ways, we rightly treat the Scriptures like other writings of the ancient world. As scholars have handled the Bible with its historical context in view, they've often drawn from scientific disciplines like archeology, history, anthropology, sociology and linguistics. As in these and other scientific

endeavors, academic interpreters of Scriptures have applied factual, or rational, scientific methods to the Bible.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과학적 해석학과 관련된 세 가지 주제를 다룰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이러한 접근법이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주목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지적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해석학의 발전들을 예시하는 몇가지 역사적인 예들을 들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이 어떻게 해석의 과정들을 위해 정해진 우선 사항들을 규정하는지 살필 것이다. 그럼 먼저 과학적 해석학의 성경적 근원을 살펴보기로 하자. To see what we mean, we'll touch on three issues related to scientific hermeneutics. First, we'll point out the legitimacy of this approach by noting its biblical roots. Second, we'll mention some historical examples that illustrate developments in this type of hermeneutics. And third, we'll see how this approach to Scripture establishes certain priorities for the processes of interpretation. Let's turn first to the biblical roots of scientific hermeneutics.

## **A. 성경적 근원(Biblical Roots)**

성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현대의 과학자들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지성이 없었다거나 비합리적이었다는 말은 아니다. 정반대로 그들의 정교한 건축상의 업적들, 광범위한 해상 여행, 혁신적인 농업 프로그램, 그리고 수많은 다른 문화적 업적들은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 현대의 과학자들과 매우 흡사하게 사실들을 다루고 세상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People living in biblical times weren't modern scientists. But this doesn't mean that they were unintelligent or irrational. On the contrary, their sophisticated architectural accomplishments, extensive maritime travel, innovative agricultural programs, and countless other cultural achievements demonstrate that people in biblical days dealt with facts and thought rationally about the world, much like modern scientists do.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 저자들 자신이 자주 사실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다른 성경 부분들을 해석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다. 시간상 우리가 의미하는 것을 단 하나의 단락을 가지고 예시해 보기로 한다. 롬 4:3-5 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썼다.

(롬 4:3-5 개역개정) 3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4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For this reason, it shouldn't surprise us that biblical authors themselves often interpreted other Scriptures with an orientation toward factual and logical analysis. For the sake of time, let's illustrate what we mean with just one passage. In Romans 4:3-5 the apostle Paul wrote:

**What does the Scripture say?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Now when a man works, his wages are not credited to him as a gift, but as an obligation. However, to the man who does not work but trusts God who justifies the wicked, his faith is credited as righteousness (Romans 4:3-5).**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창 15:6 을 인용했다. 그러나 바울이 이 구약의 구절을 얼마나 조직적으로 다루었는지 주목하라. 로마서 4 장 4 절과 5 절에서 바울은 "여기다" 혹은 "간주하다"로 번역될 수 있는 헬라어 단어 [로기조마이]의 의미를 주의깊게 분석했다. 그의 헬라어 지식을 통해 "샀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그들의 행위가 아니라—그들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그는 이러한 추론에 근거하여 창세기 15 장 6 절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하여 값없이 은혜로 의를 부여받은 것을 암시한다고 결론지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주의 깊게 사실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을 하며 창세기 15 장을 다루었음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In these verses, Paul quoted from Genesis 15:6 where God "credited" righteousness to Abraham when he believed God's promise. But notice how methodically Paul treated this Old Testament passage. In verses 4 and 5, Paul carefully analyzed the meaning of the word "credited," or "reckoned" as the Greek term *logizomai*, may be translated. From his knowledge of Greek, he argued that, "wages are not credited ... as a gift, but as an obligation." But then he noted that for anyone who trusts God their "faith," — not works — "is credited as righteousness." So, he concluded on the basis of this reasoning that Genesis 15:6 indicates that Abraham was granted

righteousness as a free gift through faith. It isn't difficult to see here that the apostle Paul handled Genesis 15 with meticulously factual and logical analysis.

이 한 가지 예가 예시하듯이 성경 저자들은 자주 이러한 종류의 세심한 성경 해석을 제시하였다. 성경에 대한 그들의 접근법은 과학적 성경해석학이 성경 자체에 견고하게 뿌리 박고 있음을 암시한다. As this one example illustrates, time and again biblical authors presented this kind of careful interpretation of Scripture. And their approach to Scripture indicates that scientific biblical hermeneutics is firmly rooted in the Scriptures themselves.

과학적 해석학의 성경적 근원을 염두에 두고 이런 종류의 성경해석학에 대한 몇가지 역사적인 예들을 간단히 살펴보자. With the biblical roots of scientific hermeneutics in mind, let's look briefly at some historical examples of this kind of biblical interpretation.

## **B. 예들(Examples)**

교부시대에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 중의 하나는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주후 185-254)이다. 이 강의에서 나중에 볼 것이지만 오리겐은 과학적 해석을 훨씬 더 넘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주의 깊은,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에 전념했다. 예를 들면 오리겐의 가장 위대한 업적들의 하나는 50 권이 넘는 총 6 천 페이지 분량의 작품이라고 하는 헥사플라를 만든 것이다. 이 작품에서 오리겐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본문과 여러 헬라어 역본들을 단어별로 비교했다. 이 작품은 수 세기 후에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초대 교회사에 있어서 과학적인 성경 해석의 주목할 만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역자 주: 헥사플라는 오리겐 당시에 통용되던 히브리어 본문과 현존하던 헬라어 역본들이 비교될 수 있는 6 개의 난으로 된 작품이었다. 그 배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난은 히브리어 본문이었다. 둘째 난은 히브리어 본문을 헬라어로 자역한 것이었다. 셋째 난은 아퀼라역을, 넷째 난은 심마쿠스역을, 다섯째 난은 70 인역 본문을 오리겐 자신이 개역한 것을,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난은 세오도션역을 실었다. 다섯째 난에는 원래 그것이 히브리어 본문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료가 더해졌거나 생략되었던 것을 표시하는 일련의 특별한 기호들이 있었다.] During the Patristic period, one of the most influential figures in biblical interpretation was Origen of Alexandria who lived from A.D. 185 to 254. As we'll see later in this lesson, Origen went far beyond scientific interpretation, but he nonetheless devoted himself to careful factual and rational analyses of the Bible. For instance, one of Origen's greatest accomplishments was the creation of the *Hexapla*, reportedly a 6,000 page

work of more than 50 volumes in which Origen made a word-by-word comparison of various Hebrew and Greek versions of the Old Testament. Although this work was lost centuries later, it still represents a remarkable example of scientific biblical interpretation in early church history.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의 발전을 보여주는 다른 두드러진 예들은 오리겐 이후의 시대에 나타난다. 예를 들면, 히포의 어거스틴(주후 354-430)은 성경에 대한 주의 깊은, 자주 고심하는,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에 집중하기를 계속했다. 토마스 아퀴나스(주후 1225-1274 경)의 시대까지 서구 기독교의 성경 해석의 주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철학의 영향을 반영했다. 아퀴나스와 그의 제자들은 엄격하게 경험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을 성경에 적용했다. Other prominent examples of developing scientific approaches to Scripture appear after the days of Origen. For instance, Augustine of Hippo, who lived from A.D. 354 to 430, continued to focus on careful, often painstaking, factual and rational analysis of the Bible. And by the time of Thomas Aquinas, who lived from around 1225 to 1274, the mainstream of biblical interpretation in Western Christianity reflected the influence of the rational, scientific philosophy of Aristotle. Aquinas and his followers applied rigorous empirical and logical analysis to the Bible.

불행하게도, 교회사에 있어서 이 시대까지는 문맹률이 높아서 성경과 다른 책들이 널리 이용될 수 없었다. 그래서 소수 특권층만 실제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었다. 그 결과로 교회의 권위자들이 어떻게 일반 대중이 성경을 이해할 것인지를 통제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교회의 지배와는 독립하여 훨씬 더 정교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다. Unfortunately, up to this time in church history literacy rates were low, and the Bible and other books weren't widely available. So, only a privileged few could actually study the Scriptures. As a result, church authorities controlled how the general population understood the Bible. But in this context, many scholars began to interpret Scripture through even more sophisticated scientific analysis, apart from the dominance of the church.

이러한 추세의 가장 이른 단계들 중의 하나는 르네상스 시대에 일어났다. 1204년 제 4차 십자군 원정에서 콘스탄티노플이 점령된 후 거기에 소장된 고전들과 성경의 사본들이 서구 세계로 옮겨졌다. 그런데 교회 교리라는 렌즈를 통해 이러한 고대 문헌들의 의미를 해석하는 대신, 르네상스 시대의 학자들은 그것들의 문법과 고대 역사적 문맥들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통해 이 문헌들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다. 1450년 경 사용되기 시작한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의 도움으로 인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르네상스 시대의 연구는 널리 이용될 수 있었다. 그 결과로 에라스무스(1466-1536)와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그 당대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 해석에 있어서 더욱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도록 인도했다. One of the earliest steps in this direction took place during the Renaissance. After the capture of Constantinople in the fourth Crusade in 1204, many of the classical and biblical manuscripts stored there were brought to the West. But instead of interpreting the significance of these ancient texts through the lenses of church dogma, Renaissance scholars devoted themselves to understanding these texts by meticulously analyzing their grammar and ancient historical contexts. With the aid of Gutenberg's movable type printing press, which came into use around 1450, it wasn't long before Renaissance research became widely available. And as a result, influential figures like Erasmus, who lived from 1466 to 1536, led many in their day toward increasingly scientific approaches to biblical interpretation.

16 세기의 종교개혁은 과학적 성경해석학을 한층 더 발전시켰다. 르네상스의 방침을 따르며 마틴 루터, 울리히 쾰링, 존 칼빈과 같은 초기 개신교 지도자들은 교회의 교리가 성경 해석을 지배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다. 그 대신 그들은 성경의 의미가 성경의 문법과 역사적 맥락의 분석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 Protestant Reformation in the sixteenth century took scientific biblical hermeneutics even further. Following the path of the Renaissance, early protestant leaders like Martin Luther, Ulrich Zwingli and John Calvin strongly rejected the dominance of church dogma over biblical interpretation. Instead, they emphasized that the meaning of Scripture should be determined through analysis of the Bible's grammar and historical contexts.

우리는 초기 개신교인들이 이러한 강조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란 잘 알려진 교리와 연결하였던 것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 개신교인들은 성경이 논의할 여지없이 유일한 권위 곧 모든 다른 것들이 그것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지고의 권위라고 이해했다. 성경 권위의 지고성에 대한 이러한 헌신이 의미하는 것은 성경의 무오한 유일의 해석자는 성경 자신이라는 것이다. 초기 개신교인들에게 성경을 그것의 고대 역사적 맥락 안에서 그것의 문법을 세심하고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이해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 It'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early Protestants coupled this emphasis with the well-known doctrine of *Sola Scriptura*, "Scripture alone." Protestants understood that the Bible was the only unquestionable authority, the highest authority by which all others were to be

judged. This commitment to the supremacy of biblical authority meant that the only infallible interpreter of Scripture is Scripture itself. So, nothing was more important to early Protestants than understanding the Bible through meticulous, rational analysis of its grammar within its ancient historical context.

17-18 세기의 서유럽에서 일어난 계몽운동은 성경의 진리 주장들을 포함한 모든 진리 주장들에 대한 현대적이고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적 기준들을 강조함으로써 과학적인 성경해석학을 한층 더 심화시켰다. 지질학자, 고고학자, 그리고 다른 분야의 현대적인 과학자들처럼 성경 학자들도 과학적인 표준들을 성경 연구에 주의깊게 적용했다. The Enlightenment in Western Europe during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took scientific biblical hermeneutics even further by emphasizing modern, factual and rational scientific standards for judging all truth claims, including those of Scripture. Similar to geologists, archeologists, and other modern scientists, biblical scholars carefully applied scientific standards to the study of Scripture.

성경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수세기에 걸쳐 여러 방면에서 발전해왔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현대 성경 학자들은 두 가지 주된 길을 따라왔다. 한편으로, 주요 교육 기관들에서 대다수의 해석자들은 흔히 비평적 성경 연구라고 부르는 방향을 따라왔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비평적 성경 학자들은 오직 성경이란 전통적인 개신교 교리를 부인하고 이성과 과학적 분석만을 진리 분별의 최고 표준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대체로 비평주의적 해석자들은 성경이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에 대한 고대의 원시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관점들을 나타낸다고 결론짓는다. 이 견해에 따르면 현대 사람들은 어떤 점들에 있어서 성경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성경에 대한 어떠한 판단도 성경의 교훈들보다는 과학적인 연구에 의존해야 한다. This approach to the Bible has developed in a number of ways over the centuries. But to one degree or another, modern biblical scholars have followed two main paths. On the one side, the majority of interpreters in leading academic institutions have followed a direction that is often called critical biblical studies. Broadly speaking, critical biblical scholars are those who have rejected the traditional Protestant doctrine of Sola Scriptura and consider only reason and scientific analysis as the supreme standard for discerning truth. By and large, critical interpreters have concluded that the Scriptures represent ancient, primitive, and unreliable views of God, humanity, and the world. In this view, modern people may benefit from the

Scriptures in some ways, but any judgments about the Scriptures must rely on scientific investigation rather than on the teachings of the Bible.

다른 한편으로, 다른 전문가들은 우리가 현대 복음주의적 성경 연구라고 부르는 길을 따라왔다. 복음주의적 학자들은 성경이 신앙과 생활의 두말할 것 없는 유일한 규칙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사실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색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에 대한 과학적 분석의 엄격한 적용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그러한 분석이 성경 자체의 교훈과 배치될 때, 복음주의적 학자들은 그들의 권위로서 성경에 전심으로 복종한다. 강의들을 통해 보게 될 것이지만 이번 성경해석학 강좌는 복음주의적인 길을 따라서 진행된다.

(글렌 스코기[Glen Scorgie] 박사)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특히 개신 기독교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진정한 권위는 동의를 이끌어낼 권리와 힘이고, 성경은 독특하게 기독교인의 삶에 권위로서 역할을 할 자격이 있다. 이에 대한 이유들 중의 하나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지혜와 통찰이 성경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계시라고 불린다. 또 다른 이유는 많은 곳에 진리가 있긴 하지만, 성경에 들어 있는 진리는 그 저작과 최종 형식에 있어서 초자연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진리의 원천들 가운데 비길 것이 전혀 없는 정도의 신임성과 무오성을 갖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이 그러한 독특한 신임성, 그러한 무오성, 그러한 실패의 불가능성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고 우리가 파생적이고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역설이 있다. 이러한 복종의 행위를 갖는 것은 우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우리를 더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하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우리를 가장 강하게 해 주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진리의 길에 나아가게 하며 견고하게 우리를 생명과 번영의 길에 세워주기 때문이다.

On the other side, other experts have followed a path that we may call modern evangelical biblical studies. Evangelical scholars affirm that the Bible is the only unquestionable rule of faith and life. They don't reject factual and rational

scientific reflection on Scripture; they fully endorse the rigorous application of scientific analysis to the Bible. Yet, when such analysis clearly contradicts the teachings of the Bible itself, evangelical scholars wholeheartedly submit to the Scriptures as their authority. As we'll see throughout these lessons, this series follows the evangelical path.

**It is a very important matter for a Christian, especially Protestant Christian, to submit to the authority of Scripture... True authority is the right and power to compel assent, and Scripture is uniquely qualified to function as authority in the Christian's life. One of the reasons for this is that the Scriptures contain wisdom and insight that would be otherwise unobtainable for us. That's why it's called revelation... The other reason is that while there's truth in many places, the truth that is embedded in Scripture has been supernaturally superintended in its composition and final form so that it has a degree of trustworthiness and infallibility that is unique among all the sources of truth that we have access to in this world. Now we know that the reason why it obtained that unique reliability, that infallibility, **that inability to fail**, is because it was God-breathed. It is the Word of God, so that when we speak of the authority of Scripture we're really speaking of the authority of God. And so to submit to it is an acknowledgment that we are creatures, we are derivative and dependent beings. And here's the paradox: rather than having this act of submission demean us or make us less powerful, so to speak, it's actually the most empowering thing we could possibly do, for it sets us in the direction of truth, puts us firmly on the path to life and to flourishing.**

— Dr. Glen Scorgie

지금까지 과학적 해석학의 성경적 근원과 몇가지 역사적 예들을 언급하였으므로, 이제 우리는 세번째 주제 곧 성경에 대한 이러한 접근의 우선 사항들을 살필 것이다. Having mentioned the biblical roots of scientific hermeneutics

and looked at some historical examples, we should now turn to a third issue: the priorities of this approach to the Scriptures.

### **C. 우선 사항들(Priorities)**

대체적으로 오늘날 전 세계의 복음주의적 성경 학자들은 과학적 해석학에 매우 헌신한다. 이러한 헌신은 준비, 연구, 적용의 과정들을 위한 어떤 우선 사항들을 낳는다. 먼저 그들의 준비에 대한 전형적인 우선 사항들을 다룸으로써 어떻게 이것이 사실인지 살펴보자. By and large, modern evangelical biblical scholars around the world have been strongly committed to scientific hermeneutics. This commitment has led to certain priorities for the processes of preparation, investigation and application. Let's see how this is true, starting with their typical priorities for preparation.

#### **1. 준비(Preparation)**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기를 시작할 때마다 준비는 불가피하다. 고등 교육 기관의 성경 해석자들은 다른 많은 학과목들에서 발견되는 지적인 우선 사항들과 거의 일치하는 준비를 위한 우선 사항들을 발전시켜 왔다. As we said earlier, preparation is inescapable whenever we begin to interpret Scripture. But academic biblical interpreters have developed priorities for preparation that are more or less in line with the intellectual priorities found in many other academic disciplines.

당신이 대학에서 생물학을 공부하려 하고 될 수 있는 한 잘 준비하길 원한다고 상상해 보라. 그럴 때 당신은 여러 생물학 교수들에게 “제가 제 연구를 위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라고 물어 볼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은 생물학적 사실들을 암기하라. 그리고 가능한 한 생물학에서 사용되는 과학적인 절차들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라.”고 말해 줄 것이다. Imagine you're about to study biology at a university and you want to prepare yourself as well as you can. So you ask several biology professors, “How should I get ready for my studies?” They'd probably tell you things like these: “Memorize as many biological facts as you can.” And, “Learn all you can about the scientific procedures we use in biology.”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대부분의 복음주의적 신학교들의 교수들에게 그들의 학교에서 당신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고 물어본다면, 그들 대부분은 비슷한 충고를 할 것이다. 그들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우라.” 그리고 “성경에 관한 가능한 한 많은 사실들을 배우라.” 그리고 “건전한 해석의 방법들을

배우라.”고 말할 것이다. 결국,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 학자들은 그들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성경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학생들의 성공이 자신들과 동일한 일을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Well, in much the same way, if you were to ask most professors in most evangelical theological institutions today how you should prepare to study the Bible at their schools, most of them would give similar advice. They might say, “Learn Hebrew and Greek.” “Learn as many facts as possible about the Bible.” “Learn sound methods of interpretation.” After all, most biblical scholars today emphasize rational and scientific approaches to the Bible in their own careers. And they believe that the success of their students depends on them doing the same.

물론 우리 자신이 사실적이고 방법론적인 이해를 갖도록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다. 성경에 관한 사실들을 배우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성경 해석에 필요한 원리들을 배워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곧 알게 되는 대로, 전적으로 지적인 준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들의 일부를 못 보고 넘어간다는 사실이다. Of course, preparing ourselves with factual and methodological understanding is important. There’s no substitute for learning facts about the Bible. And we should do our best to learn the principles needed for biblical interpretation. But as we’ll see in a moment, focusing exclusively on intellectual preparation overlooks some of the most important ways we should get ourselves ready for interpreting the Bible.

준비를 위한 몇몇 우선 사항들을 살폈으므로, 이제 우리는 과학적 해석학에 있어서 연구의 과정을 위한 우선 사항들을 살필 것이다. Having seen a few priorities for preparation, let’s look at the priorities for investigation in scientific hermeneutics.

## 2. 연구(Investigation)

일반적으로 성경 해석자들은 두 가지 방식의 성경 연구 곧 석의(釋義)와 자의적(恣意的) 해석 [혹은 주입(注入) 해석]을 구별한다. 석의(exegesis)는 “~로부터 끌어내는” 혹은 “~로부터 유래한”이란 헬라어 단어에서 온 것으로 본문으로부터 의미를 꺼내거나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의적 해석(eisegesis)은 “안으로 넣은” 혹은 “집어 넣은”이란 의미를 갖는다. 자의적 해석은 의미를 본문 속으로 집어 넣어 읽는 것을 뜻한다. 과학적 연구를 하는 성경 해석자들은 자의적 해석을 피하려고 애를 쓴다. 그 대신 그들은 자의적이 아니라 석의적인 성경 이해를 확실하게 해 준다고 생각하는 해석 원리들을 사용한다. In

general, biblical interpreters distinguish two ways of investigating Scripture: exegesis and eisegesis. Exegesis comes from a Greek term meaning “led out of” or “derived from” and means to pull out or derive meaning from a text. By contrast, eisegesis has the connotations of “led into” or “put into.” It means to read meaning into a passage. Scientifically-oriented biblical interpreters work very hard to avoid eisegesis. Instead, they employ principles of interpretation that they believe will ensure them of exegetical, not eisegetical, understandings of Scripture.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연구는 성경의 사실들을 찾으려고 우리의 지적 준비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어떤 다른 사람의 견해나 의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원래의 의미를 식별하려고, 우리는 신중히 생각해 낸 해석의 방법들이나 원리들을 정확하게 사용하며 성경 본문의 원래 의미를 탐구한다. In this view then, investigation largely amounts to putting our intellectual preparations into action to discover the facts of Scripture. We investigate the original meaning of biblical texts by meticulously implementing carefully conceived methods or principles of interpretation to discern the actual original meaning — not just someone’s opinion or agenda.

이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 내내 우리가 볼 것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과학적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은 성경 해석의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것이 결코 성경의 원래 의미를 온전히 탐구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님을 볼 것이다. As we’ll see throughout this series, implementing scientific methods in this way is a very important dimension of biblical interpretation. But we’ll also see that it hardly covers everything necessary for sound investigation of the original meaning of Scripture.

지금까지 우리는 준비와 연구라는 과정에 있어서 학문적이고 과학적인 해석학을 위한 몇몇 우선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적용이라는 과정에 대하여 살필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복음주의적 학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We’ve looked at certain priorities for scholarly, scientific hermeneutics in the processes of preparation and investigation. Now we’re ready to ask about the process of application. How do the majority of evangelical scholars apply the Bible today?

### **3. 적용(Application)**

내가 신학교 학생이었을 때, 한 특이한 급우가 교수들이 강의를 하는 동안 자주 그들의 강의를 차단하곤 했다. 그 급우의 질문은 항상 동일했다. “교수님, 지금 하신 석의가 오늘 우리에게 갖는 의의가 무엇입니까?” “제가 교수님이 이 성경 본문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저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그런데 교수들의 대답도 거의 예외없이 항상 동일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좋은 질문입니다만, 그런 질문은 나에게 하지 말고 실천신학 교수님들에게 하십시오.”

When I was a theological student, a particular classmate would frequently interrupt professors while they were lecturing. His questions were always the same. “Professor,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your exegesis for us today?” “How should I apply what you’re saying about this biblical passage to my life?” With rare exception, the response was always the same. The professor would smile and say, “That’s a great question. Not for me, but for the practical theology professors.”

이 경험이 일러주듯이 성경에 대한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해석은 너무나도 자주 성경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한 여지가 없다. 기꺼해야 그것은 사실 중심의 현대적 적용으로 인도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적용은 주로 성경이 그리스도의 현대적 제자들에게 믿으라고 가르치는 여러 종류의 사실들을 확립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신자들에게 성경의 신학적이고 도덕적인 사실적 주장들이 참되다는 것을 믿으라고 요구한다. 이런 종류의 적용도 분명히 큰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이 오늘의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하는 많은 중대한 방식들을 등한시한다. As this experience illustrates, all too often, scientific, scholarly interpretation of the Bible has little room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Scripture. At best, it leads to factually-oriented modern application. In other words, application primarily amounts to establishing the kinds of facts that the Bible teaches modern followers of Christ to believe. We call for the faithful to believe that the theological and moral factual claims of the Bible are true. To be sure, this type of application is of great value. But it neglects a number of crucial ways that Scripture should be applied to our lives today.

**키너(Craig S. Keener) 박사:** 성경 연구의 방법들이 중요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연구가 자동적이어서 “내가 이 방법들을 사용했고 여기 나의 논리적 결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 연구를 매우 기계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성경 연구는 우리 전인격을



동원하여 힘써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순전히 지적인 일이 되어 버린다. 예를 들면, 오랜 세월을 걸쳐 나는 내 자신의 많은 연구를 강조해 왔던 분야들 중의 하나가 문화적 배경, 세계, 고대 세계에 있었음을 발견했다. 그런 정보는 정말 필요한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접할 수 없지만, 학자로서 나는 그런 정보를 내 연구에 사용할 수 있었다. 성경 본문의 연구로 돌아왔을 때 나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리며 그 본문들의 이해가 밝아지곤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동시에 배경 자체에는 영적 생명이 없었다. 내가 그것을 통해 지적 즐거움을 얻긴 했지만 실질적인 영적 생명은 성경 본문에 있었다. 본문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듣고 우리 자신의 삶을 그것에 복종시키는 것은 기계적으로 방법들을 적용하는 절차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분에게 우리 마음을 온전히 바칠 때만 오는 일이다. Bible study methods are crucial, but we can overemphasize them at times **because we can make it too mechanical, as if it's automatic, so that it's just a matter of, "Well, I've used these methods; here is my logical conclusion," and it becomes a purely intellectual exercise** rather than something that our whole person embraces and gets into. **I found over the years as I... For example, one of the places where I've emphasized a lot of my own research** has been in cultural background, the world, the ancient world, because that was a need. A lot of people don't have access to that, so as a scholar I could bring that **to bear**. And I found that, as I did that, as it would come back to the biblical texts, it would open whole new worlds to me of understanding those texts. At the same time, there was no spiritual life in the background by itself. I took intellectual pleasure in it, but the real spiritual life was in the biblical text, and **coming back to it and hearing what God is actually saying to us, submitting our lives to it, that's** something that can't be just a mechanical procedure. That's something that comes only by devoting our hearts to the one who loved us and gave himself for us.

— Dr. Craig S. Keener

[Cindy's paraphrase: Bible study methods are crucial, but we can overemphasize them at times because we can make studying the Bible too mechanical, as though studying the Bible is just an automatic procedure (i.e., just following standardized methods), with the result that we might say, "Well, I've used these methods; here is my logical conclusion," and it becomes a purely intellectual exercise rather than something that our whole person embraces and gets into. I've found over the years, for example, one of the areas where I've emphasized a lot of my own research has been in cultural background, the world, the ancient world, because that was a need. A lot of people don't have access to that, so as a scholar I could put that information into effect to enlighten the rest of my study. And I found that, as I did that, as it would come back to the biblical texts, it would open whole new worlds to me of understanding those texts. At the same time, there was no spiritual life in the background by itself. I took intellectual pleasure in it, but the real spiritual life was in the biblical text, and coming back to the biblical text — hearing what God is actually saying to us, submitting our lives to it — that is something that can't be just a mechanical procedure. That's something that comes only by devoting our hearts to the one who loved us and gave himself for us.]

지금까지 성경해석학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들과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과학적 해석학의 전통을 살펴보았으므로, 우리는 이 강의의 세번째 주요 주제를 살필 것이다. 과학적 해석은 어떻게 경건적 해석학 곧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기독교 전통과 연결되어야 하는가? Now that we've looked at some important terminology used in biblical hermeneutics, and the longstanding tradition of scientific hermeneutics, we should turn to our third main topic in this lesson, how scientific interpretation should be coupled with

devotional hermeneutics, the Christian tradition of emphasizing our need to draw near to God as we interpret the Scriptures.

#### IV. 경건적 해석학(DEVOTIONAL HERMENEUTICS)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반 해석학과 비슷한 과학적 해석학을 채택했다. 그러나 경건적 해석학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측면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 Followers of Christ adopted scientific hermeneutics that resemble many facets of general hermeneutics because human beings wrote the Scriptures. But devotional hermeneutics focuses primarily on the divine authorship of Scripture.

항상 기독교인들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해 왔다. 딤후 3:6 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영감되었다(inspired). 좀 더 직역하면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내뿜어진/불어넣어진(God-breathed)" 것이다. 이 사실은 여러 측면에서 성경 해석학을 일반 해석학과 구별되게 한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자신의 살아 있는 말씀으로서 경건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존슨(Dennis E. Johnson) 박사:**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단지 인간 저자들의 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삼위이신 성령님께서 인간 저자들의 독특한 개성들, 문체들, 경험들을 사용하여 이 말씀들을 내뿜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성경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 말씀들을 내뿜으셨던 성령님이 또한 신자들인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접근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성경을 접근할 때 우리는 성경을 우리 마음에 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실 성령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Christians have always acknowledged that the human words of Scripture are also the Word of God. As 2 Timothy 3:16 tells us, the Scriptures were inspired by God, or more literally were "God-breathed." This fact makes biblical hermeneutics distinct from other facets of general hermeneutics because we must interpret the Scriptures devotionally, as the living word of God himself.

As we interpret Scripture it's so important that we remember that we're not just handling the words of human authors, that the Holy Spirit of God, the third person of the Trinity, has breathed out these words through the distinctive personalities, styles, experiences of those human authors. As we go to Scripture, that means because the Spirit who breathed these words out is also resident and at work within us as believers, in a sense we have access to the author of Scripture. And we need that desperately; we need as we approach Scripture to come prayerfully, dependent upon the Spirit to open our minds as well as to open the Scriptures to our minds.

— Dr. Dennis E. Johnson

우리가 의미하는 바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이전의 논의와 병행되는 방식으로 경건적 해석학을 살필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이런 종류의 성경 해석이 성경적인 근원을 갖고 있음을 살필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경건적 해석학을 실행했던 성경 학자들에 대한 역사적인 예들을 훑어볼 것이다. 셋째로, 성경에 대한 이러한 접근을 따르는 것이 해석의 과정들에 대한 우리의 우선 사항들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살필 것이다. 그럼 먼저 경건적 해석학의 성경적 근원을 살펴보자. To see what we mean, we'll look at devotional hermeneutics in ways that parallel our earlier discussion. First, we'll see that this kind of scriptural interpretation has biblical roots. Second, we'll sketch some historical examples of biblical scholars who practiced devotional hermeneutics. And third, we'll see how following this approach to Scripture shapes our priorities for the processes of interpretation. Let's turn first to the biblical roots of devotional hermeneutics.

### **A. 성경적 근원(Biblical Roots)**

성경 저자들이 자주 과학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성경을 탐구하였을지라도 그들이 또한 경건적으로 성경을 접근하였다는 것을 아는 것은 똑같이 중요하다. 때때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에 대한 비상한, 심지어 초자연적인, 경험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했다. Even though biblical authors often

examined the Scriptures in more or less scientific ways, it's just as important to see that they also approached the Scriptures devotionally. Time and again, they indicated that followers of Christ are to read the Scriptures as the word of God, in the presence of God, in ways that bring about extraordinary, even supernatural experiences of God.

성경 저자들이 해석의 이러한 측면을 많이 지적하였지만 여기서 우리는 단 한 구절만을 예로 들 것이다. 히 4:12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히 4:12 개역개정)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Biblical authors pointed to this dimension of interpretation many times, but for now we'll mention just one passage as an example. In Hebrews 4:12 we read:

**For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it penetrates even to dividing soul and spirit, joints and marrow; it judges the thoughts and attitudes of the heart (Hebrews 4:12).**

이 구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가 앞선 절들에서 인용했던 시편 95 편의 일부분을 언급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렀다. 이보다 앞선 히 4:7 에서는 시편 95 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선 히 3:7 에서는 시편 95 편을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는 말로 소개했다. In this passage, the author of Hebrews referred to a portion of Psalm 95 that he had quoted in the preceding verses, calling it "the word of God." Earlier in Hebrews 4:7 he quoted the same Psalm saying that God himself "spoke through David." And prior to this, in Hebrews 3:7, he introduced Psalm 95 with the words, "as the Holy Spirit says."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의 신적 저작성을 인정한 후에 성경을 읽는 경험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유의하라. 그는 성경 자체가 "살아 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했다. 성경은 또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날을 가지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과학적 해석학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분해하고 분석하는 일을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4 장

12 절에서 암시하는 바는 성경이 실제로 우리를 분해하고 분석한다는 것이다. Now, notice how after acknowledging the divine authorship of the Psalm, the writer of Hebrews described the experience of reading Scripture. He said that Scripture itself is "living and active." It "penetrates" the depths of our inmost being and "judges the thoughts and attitudes of the heart" with a blade that is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In scientific hermeneutics we view the Bible as an object that we dissect and analyze. But in this passage, the writer of Hebrews indicated that Scripture actually dissects and analyzes us.

이 구절이 우리의 논의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성경을 매우 잘 아는 학자이었기 때문이다. 때때로 그는 다른 많은 신약 저자들을 능가하는 통찰력의 깊이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다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경에 대한 매우 지적인 분석들은 그를 경건적 해석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지적인 해석들은 그 자신이 매우 감격적이고 감동적이고 깊은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접근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을 향상시켰다. 이처럼 그는 우리에게 과학적 해석학과 경건적 해석학이 함께 가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This passage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our discussion because the author of Hebrews was a very sophisticated biblical scholar. Time and again, he treated Old Testament Scriptures with a depth of insight that exceeds many other New Testament authors. Still, his highly intellectual analyses of Scripture didn't turn him away from devotional hermeneutics. On the contrary, his intellectual interpretations enhanced his ability to approach the Scriptures in ways that brought him into highly emotive, compelling, and deeply transformative encounters with God. And as such, he shows us that scientific and devotional hermeneutics must work together.

지금까지 경건적 해석학의 성경적 근원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경 해석에 과학적인 접근과 경건적인 접근을 결합한 방식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몇 가지 예들을 살펴보자. Having seen the biblical roots of devotional hermeneutics, we should mention a few historical examples to illustrate the way followers of Christ have combined scientific and devotional approaches to interpretation.

## **B. 예들(Examples)**

성경에 대한 경건적 해석은 교회 역사상 교부 시대에 특히 중요했다. 앞에서 우리는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 세심하고 과학적인 성경학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리겐이 네오가이샤라의 그레고리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Letter of Origen to Gregory*)에서 그레고리를 어떻게 격려했는지 들어보라.

네가 올바르게 그리고 하나님께 굳게 고정된 믿음을 가지고 성독(聖讀 *divine reading*)에 전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찾으라. 두드리고 찾는 것을 멈추지 말라. 왜냐하면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Devotional interpretation of the Bible was particularly important in the Patristic period of church history. We mentioned earlier that Origen of Alexandria was a meticulous, scientific biblical scholar. Yet, listen to the way Origen encouraged Gregory of Neocaesarea in the *Letter of Origen to Gregory*.

**When you devote yourself to the divine reading, uprightly and with a faith fixed firmly on God, seek the meaning of the divine words which is hidden from most people. Do not stop at knocking and seeking, for the most necessary element is praying to understand the divine words.**

여기서 오리겐은 그레고리에게 “성독(聖讀 *divine reading*)에 전념하라”고 말했다. “성독 (거룩한 독서, 영적 독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일)”은 후에 라틴어 [*Lectio Divina* 렉치오 디비나]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되고 있는 경건적 해석학의 전통이다. Here, Origen told Gregory to “devote [himself] to the divine reading.” The terminology “divine reading” was later expressed in the Latin phrase *Lectio Divina*, a tradition of devotional hermeneutics that continues in various forms even today.

오리겐의 성경에 대한 접근은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이 신플라톤주의는 더 일찌기 유대인 구약 해석자인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의 작품 가운데 특히 잘 표현되었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표면 아래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천상의 영적 진리들이 있었다. 신자들이 성경의 감추어진 진리들을 찾기를 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고정된 믿음”이 필요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의 의미를 찾아야만” 했다. 그래서 성경 해석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개인적인 계몽을 위해 “두드리고 찾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되었다. 사실상 오리겐에 의하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오리겐의 신플라톤주의적 경향은 거부해야 마땅하지만, 그가 성경에 관하여 정말 참된 어떤 점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신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로 충만한 관상(prayerful contemplation)을 통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면 감추어진 채로 남아있을 통찰력을 그들에게 주신다.

비버트(Simon Vibert) 박사: 오리겐과 같은 사람들은 당신이 성경을 읽을 때 본문에서 영적 의미를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나는 그것이 정말 건전한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저 역사책에 불과한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의 신학적 상상을 자극하는 학문적 교재에 불과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 . . 실제로 우리는 이 둘이 함께 속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의 의미, 그것들이 단락에 놓여 있는 문맥, 역사적 세부 사항 등과 같은 것들을 이해할 능력을 향상시킬 때, 이것은 또한 우리들로 본문이 원래 독자들에게와 그 이후의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얻도록 도움을 준다.

Now, Origen's approach to Scripture was deeply influenced by Neo-Platonism, especially as it had been expressed earlier in the works of the Jewish Old Testament interpreter Philo of Alexandria. From this point of view, beneath the surface of the Bible were heavenly, spiritual truths that were "hidden from most people." Believers needed a "faith fixed firmly on God" if they wanted to discover the Bible's hidden truths. That is to say, they must "seek the meaning of the [Bible as] divine words." So, biblical interpreters must "not stop at knocking and seeking" for personal enlightenment from God. In fact, according to Origen, "the most necessary element" for comprehending Scripture is "praying to understand the divine words." Although we should reject Origen's Neo-Platonic orientation toward these matters, he recognized something that is certainly true about Scripture. When the faithful seek God through prayerful contemplation as they read Scripture, God grants them insights that otherwise often remain hidden.

**People like Origen emphasized the fact that when you read the Bible, it's really important that you gain the spiritual meaning of the text. Now I would want to say that is a really healthy thing,**



because the Bible is not just a history book, it's not just an academic textbook to titillate our theological imagination. There is spiritual significance ... In fact, we believe that the two belong together, that as we improve our ability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biblical words, the context in which they're set in the passage, the historical details, etc., etc., that also helps us gain spiritual insight into what the text meant, both for the first readers of the text, but also for us subsequently.

— Dr. Simon Vibert

중세기 동안 내내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와 같은 중요한 과학적 해석자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지도적인 성경 해석자들은 어떤 형식의 성독, 곧 [렉치오 디비나 Lectio Divina]를 실행했다. Throughout the medieval period, nearly every leading interpreter of Scripture practiced some form of divine reading, or *Lectio Divina*, including important scientific interpreters like Augustine and Aquinas.

대체적으로 [렉치오 디비나]는 잘 알려진 네 가지 단계 혹은 행위로 실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렉치오 디비나, 성독(聖讀)]은 성경을 읽는 [렉치오, 독서(讀書)], 읽은 것의 내용을 고요히 생각하는 [메디타치오, 묵상(默想)], 하나님께 밝히 깨닫게 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오라치오, 기도(祈禱)], 성령님께서 본문의 의미에 대하여 매우 직관적이고 매우 감동적이고 변화를 일으키는 확신을 주시기를 고요히 기다리는 [콘템플라치오, 관상(觀想)]로 이루어져 있었다.

[역자 주: 귀고 2 세(Guigo II)가 1150 년 경에 쓴 책 *Scala Claustralium 수도승들의 계단*에서 렉치오 디바나를 네 단계로 정리했다. 1. 렉치오, 독서(讀書): 띄어 쓰기처럼 붙여 쓰여 있는 본문을 의미에 따라 띄어 읽는 것; 2. 메디타치오, 묵상(默想): 원래 중얼거리는 것, 소리내어 읊조리는 것; 3. 오라치오, 기도(祈禱): 하나님께 아뢰는 것; 4. 콘템플라치오, 관상(觀想): 구교 전통에서 중요시하나 신교에서는 무시함;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희승편, **국어대사전** 326 에 의하면 관상은 철학 용어로 “일상의 실천적 관심을 이탈하여 순수한 이성 활동에 의하여 예지적인 것을 인식하는 상태”라고 풀이되어 있다.]

By and large, *Lectio Divina* came to be practiced in four well-known steps or movements: *lectio*, reading of Scripture; *meditatio*, silent pondering of the content of

what is read; *oratio*, earnest prayer for God to grant enlightenment; and *contemplatio*, quietly waiting for the Spirit of God to grant highly intuitive, deeply emotional and transforming convictions of a passage's significance.

종교 개혁의 시대까지 로마 교회는 모든 종류의 거짓 가르침을 정당화하기 위해 [렉치오 디비나]를 실행했다. 교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통찰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통찰들"은 실제로 어떤 매우 중요한 면들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되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바르게 대부분의 개신교 학자들은 과학적 해석학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경건한 마음으로 읽는 것을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경건적 해석학이 성경의 건전한 석의적 분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the time of the Reformation, the Church of Rome used the practice of *Lectio Divina* to justify all kinds of false teachings. Church authorities claimed that their teachings derived from supernatural insights from God, but these "insights" actually contradicted the teachings of Scripture in some very important ways. In response, most Protestant scholars rightly placed a high premium on scientific hermeneutics. But they didn't forsake reading the Bible devotionally. On the contrary, they insisted that devotional hermeneutics be tied to sound exegetical analysis of Scripture.

개신교 성경 학자들의 이러한 특징은 널리 인정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두 가지 잘 알려진 본보기로서 존 칼빈과 요나단 에드워즈를 언급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This feature of Protestant biblical scholarship isn't widely acknowledged, so it will help to mention just two well-known examples: John Calvin and Jonathan Edwards.

존 칼빈을 종교 개혁 초기의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성경 해석자라고 부르는 것은 정당하다. 법률가와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로서 그의 훈련은 그가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구비시켰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주석들 전반에 걸쳐 그가 과학적인 해석 뿐만 아니라 경건적 해석을 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을 발견한다. John Calvin has rightly been called the most rational and logical biblical interpreter of the early Reformation. His training as a lawyer and Renaissance humanist equipped him well for this role. But throughout his commentaries, we find that he vigorously pursued not only scientific but also devotional hermeneutics.

한 가지 예만 들면 칼빈은 그의 학개서 주석(*Commentary on Haggai*, part 2)에 다음과 같이 썼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말씀에 매우 빛나므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가 가까이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계신 것처럼 그분의 영광에 의해 영향을 받아야 한다.

As just one example, in his *Commentary on Haggai*, part 2, he wrote:

**The glory of God so shines in his word, that we ought to be so affected by it ... as though he were near to us, face to face.**

칼빈은, 성경의 해석을 고립되고 비인격적인 과학적 행위로 다루기는 커녕,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말씀에 매우 빛나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치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의해 영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암시해 주듯이 칼빈은 그의 제자들에게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온 힘을 바치고, 깊은 감동을 받고, 자신을 낮추는 체험이 되게 하라고 요구했다. Far from treating the interpretation of Scripture as a detached, impersonal scientific activity, Calvin insisted that “the glory of God so shines in his word” that when we read the Scriptures “we ought to be so affected,” as though God himself were “face to face” with us. As this passage indicates, Calvin called his followers to read Scripture as an all-consuming, intensely emotional and humbling experience of God’s presence.

이와 매우 흡사하게 초기 미국의 신학자 요나단 에드워즈(1703-1758)도 자주 성경에 대한 그의 세심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분석들을 보였다. 그러나 그의 에세이 **개인적 이야기**(*Personal Narrative*)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보라.

내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이 들어왔다. 그것은 내가 전에 경험했던 어떤 것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인식이었다. 이 말씀이 느껴졌던 것처럼 나에게 성경의 어떤 다른 말씀이 그렇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나는 마음 속으로 그분이 얼마나 탁월하신 존재이며 그러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즐길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 것인지 생각해 보았다.

In much the same way, the early American theologian Jonathan Edwards, who lived from 1703 to 1758, frequently displayed his meticulously rational and logical analyses of Scripture. But listen to these words from his essay, *Personal Narrative*:

**As I read the words [of 1 Timothy], there came into my soul ... a sense of the glory of the Divine Being; a new sense, quite different from any thing I ever experienced before. Never any words of Scripture seemed to me as these words did. I thought with myself, how excellent a Being that was, and how happy I should be, if I might enjoy that God ... for ever!**

여기서 우리는 에드워즈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을 하고 기뻐하였던 것을 본다.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러한 체험은 매우 강해서 에드워즈는 “그러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길” 수 있기를 바랐다. 에드워즈는 계몽 운동의 합리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올바르게 그는 성경 해석이 매우 과학적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에드워즈조차도 성경에 대한 합리적인 사색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성경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에 대한 매우 직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읽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Here we see that Edwards delighted in a “sense of the glory of the Divine Being” as he read Scripture. And this experience of the Spirit of God was so powerful that Edwards desired to “enjoy that God ... for ever!” Edwards is well-known for being strongly influenced by Enlightenment rationalism, and he rightly believed that biblical interpretation had to be deeply scientific. But even Edwards wasn't satisfied with mere rational reflection on the Bible. He knew that Scripture must also be read with a deeply intuitive sense of the wondrous presence of God.

우리 시대에 해석학에 대한 경건적 접근들은 학자들의 성경 해석으로부터 거의 사라졌다. 초기 개신교도들은 로마 카톨릭 해석자들의 모략에 반응하여 과학적 해석학을 추구하였지만, 오늘날 많은 성경 학자들은 경건적 해석학이 그들의 지적 능력과 걸맞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주의깊고 합리적인 석의에 거의 모든 학문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이런 접근이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열렬한 기도와 금식과 숙고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조명을 구하는 일은 복음주의적 학자들로부터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가 정식적이고 학문적인 해석을 하려고 할 때 과학적 해석학과 경건적 해석학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양 극단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많은 개신교 해석자들이 과거에 이런 일을 잘 해 왔고 우리도 그들의 모범을 따르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In our day, devotional approaches to hermeneutics have nearly disappeared from scholarly biblical interpretation. While

early Protestants moved toward scientific hermeneutics in response to the machinations of Roman Catholic interpreters, today many biblical scholars consider devotional hermeneutics beneath their intellectual prowess. They give nearly all of their scholarly attention to careful, rational exegesis, as if this approach will provide all that we need from the Bible. Seeking illumination from God through intense prayer, fasting, and contemplation has all but vanished from evangelical scholarship. But it's crucial that we pursue both scientific and devotional hermeneutics when we approach formal, academic interpretation. We need to be careful not to go to extremes, but many Protestant interpreters have done this well in the past, and we would be wise to follow their example.

경건적 해석학의 성경적 근원 뿐만 아니라 성경 해석에 있어서 과학적인 접근과 경건적인 접근을 결합시킨 신학자들의 역사적인 몇 가지 예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경건적 해석학의 우선 사항들을 간단히 살펴보자. Keeping in mind the biblical roots of devotional hermeneutics and some historical examples of theologians who combined scientific and devotional approaches to biblical interpretation, let's look briefly at the priorities of this kind of hermeneutics.

### **C. 우선 사항들(Priorities)**

그리스도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 그러나 학구적인 성경 해석에 보다 익숙해지면 자주 그들은 경건적 해석학의 중요성을 놓쳐 버린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과학적 해석학이 자주 매우 지적이고 분석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일 곧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강력하게 변화되는 체험에 있어서 한때 매우 중요했던 것을 실제로 잊어버린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는 세 가지 해석학적 과정들을 모두 추구하면서 성경에 대한 경건적 접근이 우리의 우선 사항들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Most followers of Christ begin to read the Scriptures with a devotional spirit. But when they become more adept at scholarly biblical interpretation, they often lose sight of the importance of devotional hermeneutics. But scientific interpretation of the Bible is often so highly intellectual and analytical that we actually forget something that was once crucial to our walk with Christ — the personal and powerfully transformative experience of God through his Word. For this reason, we should see how a devotional approach to the Scriptures should adjust the priorities that we have as we pursue all three hermeneutical processes.

우리는 과학적 해석학의 우선 사항들을 살폈던 동일한 방식으로 경건적 해석학의 우선 사항들을 탐구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준비를 위한 우선 사항들을 결정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경건적 해석학 안에 있는 연구의 과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경건적 해석학의 현대적 적용에 대하여 고려해 볼 것이다. 그럼 먼저 준비를 위한 우선 사항들을 살펴보자. We'll examine the priorities of devotional hermeneutics in the same way that we looked at scientific hermeneutical priorities. First, we'll determine the priorities for preparation. Next, we'll focus o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in devotional hermeneutics. And finally, we'll give some thought to the modern application of this type of interpretation. Let's start with the priorities for preparation.

### 1. 준비(Preparation)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의 진지한 제자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하는 것을 전혀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경험은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에 대해 우리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생각에 대하여 야고보가 약 4:8 에서 어떻게 말하였는지 들어보라.

(약 4:8 개역개정)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Unfortunately, many sincere followers of Christ believe that when we read Scripture we have absolutely no control over the experience of God's special presence. It either does or does not happen. And there's no way we can prepare ourselves for it. But listen to the way James addressed this misconception in James 4:8:

**Draw near to God and he will draw near to you (James 4:8, ESV).**

“하나님을 가까이한다”는 표현은 구약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신실한 예배자들은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에로 “가까이 나아갔다.” 말할 필요없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그분이 원하시면 어느 때나 극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실 수 있다. 그러나 야고보의 말은 인간의 책임에 대한 성경적 강조를 반영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해 주심으로써 보답하실 것이다. The

expression "draw near to God" comes from the Old Testament. Faithful worshippers would "draw near" to God's special presence in the tabernacle and temple. Of course, God is everywhere and he can make himself known in dramatic ways anytime he wishes. But James' words reflect the biblical emphasis on human responsibility. If we want to experience the special presence of God, then we must draw near to him. And God will reciprocate by drawing near to us.

일반적으로 말하면 경건적 해석학을 위한 준비는 성화 곧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헌신을 포함한다. 성경이 가르치는데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제거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향상시키는 모든 것은 추구해야 한다. 말할 필요없이 이런 종류의 준비에는 우리가 다 언급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포함되지만, 세 가지 일반적인 범주 곧 지적인 준비, 행위적인 준비, 감정적인 준비로 나누어 말한다면 준비의 폭에 대한 감각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n general terms, preparation for devotional hermeneutics involves sanctification or holy consecration to God. As the Scriptures teach, we have to rid ourselves of everything that gets in the way of communion with God and pursue everything that enhances it. Needless to say, this kind of preparation entails far too many things for us to mention them all, but it helps to gain a sense of their breadth by speaking of three general categories: conceptual, behavioral and emotional preparations.

첫째로, 우리는 지적인 준비를 통하여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한다. 이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의 신념을 하나님의 참된 말씀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인간, 세상에 관하여 잘못된 개념들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한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성경 학자들은 그들의 학문적 강조점들과 일치하는 비교적 좁은 일련의 개념들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의한 성화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과 맞추려는 열망을 불러 일으키고, 이러한 열망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해 준다. First, we get ready for God's presence in Scripture through conceptual preparation. By this we mean that we do our best to conform our beliefs to God's true word. Believing false concepts about God, the human race, and the world erects obstacles to communion with God. As we've seen, biblical scholars have tended to focus on a relatively narrow set of concepts that fit with their academic emphases. But sanctification by God's Spirit brings a longing to have all of our thoughts conform to the mind of God, and this desire prepares us for entering his presence as we interpret the Scriptures.

둘째로, 우리는 또한 행위적인 준비를 통하여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적인 임재를 체험하는 일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경건적 해석학에 대한 준비에는 반드시 우리의 실패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진지한 열망이 수반되어야 한다. Second, we also draw near to God as we read the Scriptures through behavioral preparation. In the Scriptures, doing things that are contrary to God's will is one of the greatest barriers to experiencing the favorable presence of God. Preparation for devotional hermeneutics must entail repentance over our failures and a sincere desire to behave in ways that please God.

셋째로, 우리는 감정적인 준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까운 임재를 추구할 준비를 해야 한다. 감정적인 준비에는 우리의 모든 태도 곧 지나가는 감정으로부터 하나님, 인간, 나머지 피조계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감정이 포함된다. 그러나 겸손, 사랑, 마음의 민감함 등과 같은 감정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을 열어준다. 이런 이유로 인해 경건적 해석학에 대한 준비는 우리의 생각과 행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정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Third, we must get ready for seeking God's nearness through emotional preparation. Emotional preparation involves all of our attitudes — from passing passions to our enduring feelings about God, human beings and the rest of creation. The Scriptures frequently warn against pride, hatred and hardness of heart. These and similar emotions are obstacles to entering God's special presence. But humility, love, tenderness of heart and the like open the way for communion with God. For this reason, preparation for devotional hermeneutics must address not only our concepts and behaviors, but also the full range of our emotions.

라이켄(Philip Ryken) 박사: 성경을 지혜롭고 신실하게 해석하는 것은 단지 지성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은 정말 마음 곧 전인의 문제이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실제로 우리의 성경 이해의 효율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진지하게 고백하고 날마다 복음을 붙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특히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방황하다가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은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이해할 우리의 능력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주는 부정적 영향 하나는 그것이 우리들로 성경에 있는 참으로 강한 명령들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것이고, 그 명령들로부터 도망치려고 애쓰므로 우리가 그것들을 붙들며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충실한 성경 해석에 있어서 마음의 상태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Interpreting the Bible wisely and faithfully isn't just a matter of the mind. It's really a matter of the heart, of the whole person. And that means — and this is, I think, a challenge for anyone who has a responsibility to interpret and then teach God's Word — that means that the condition of our heart, our relationship with Christ, really has an influence on the effectiveness of our understanding of the Bible. And so that's why it's very important to be faithful in confessing our sins, holding onto the gospel every day. And when we start to wander spiritually, and particularly if we wander into sin in various areas of life, that can have a very negative effect. I think it does have a negative effect on our ability truly to understand God's Word. And one thing it particularly does is it causes us to back away from the really strong commands that we have in Scripture and we don't hold them in their full integrity because we're trying to wiggle out of those commands. It's very important — the condition of the heart is essential to faithful biblical interpretation.

— Dr. Philip Ryken

준비를 위한 이러한 우선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경건적 해석학에 있어서 두번째 해석의 과정 곧 원래 의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자. With these priorities for preparation in mind, we should turn to the second hermeneutical process, the investigation of original meaning in devotional hermeneutics.

## 2. 연구(Investigation)

경건적 해석학은 성경의 원래 의미에 대한 우리의 연구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해 주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수반한다. 경건적

연구에서는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서 체험한 것과 그들이 원래의 독자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려고 의도했던 것에 비추어 원래의 의미를 살핀다. 이러한 연구를 하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편의상 우리는 다시 한번 연구의 지적, 행위적, 감정적 측면의 관점에서 말할 것이다. Devotional hermeneutics entails shaping our investigation of Scripture's original meaning in ways that bring us near to God. In devotional investigation we look at original meaning in terms of biblical authors' experience of God's nearness and how they intended to bring their original audiences near to God as well. There are many ways to do this, but for the sake of simplicity, we'll speak, once again, in terms of the conceptual, behavioral and emotional dimensions of investigation.

첫째로, 경건적 해석학은 지적인 연구 곧 하나님과 그의 영감받은 저자들이 원래의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의도했던 개념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요구한다. 우리가 보았던대로 경건적 해석학이 억측이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은 성경의 사실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앞에서 우리는 과학적 해석학이 이런 과업을 수행하도록 잘 고안되어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경건적 해석학에서는 과학적 해석학에서 보편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어떤 지적인 질문들을 던진다. 이 본문은 저자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이 본문은 그의 청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려는 저자의 의도를 어떻게 암시하고 있는가? In the first place, devotional hermeneutics requires conceptual investigation — paying attention to the concepts that God and his inspired authors intended to communicate to their original audiences. As we've seen, devotional hermeneutics must be closely tied to the facts of Scripture so that it doesn't venture into speculation or error. We've already noted that scientific hermeneutics is well designed for this task. But in devotional hermeneutics we ask certain conceptual questions that aren't commonly addressed in scientific hermeneutics. How does this text reveal the author's experience of God? How does it indicate how the author intended for his audience to experience the nearness of God?

둘째로, 경건적 연구는 성경의 원래 의미의 행위적 측면에도 강조를 두어야 한다. 앞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방해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성경 저자들은 성경을 기록하며 그들 자신의 행동과 그들 청중의 행동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들의 체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알려 주었다. In the second place, devotional investigation should also focus on the behavioral dimensions of

Scripture's original meaning. We said earlier that human behavior either furthers or hinders our ability to come into the special presence of God. For this reason, as biblical authors wrote they also revealed how their own actions and the actions of their audiences affected their experience of God's nearness.

셋째로, 경건적 연구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 있는 원래 의미의 감정적 측면도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 과학적 해석이 자주 이것을 간과할지라도, 성경 저자들은 그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들의 원래 청중들의 감정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 성경 저자들과 그들의 청중들의 기쁨, 의심, 슬픔, 두려움 등은 도처에 나타나 있다. 우리가 이미 제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강한 체험에는 고양된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성경 본문이 저자들과 청중의 감정에 관하여 무엇을 드러내고 있고 그런 감정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In the third place, devotional investigation should also draw out the emotional dimensions of original meaning as they relate to the nearness of God. Although scientific interpretation often overlooks this, biblical authors expressed their own emotions and sought to impact the emotions of their original audiences. The joys, doubts, sorrows, and fears of biblical authors and their audiences appear at every turn. And as we've already suggested, intense experiences of God's nearness involve heightened emotions. So, we always need to pay attention to what biblical texts reveal about the emotions of the authors and their audiences and how they related to their experiences of the presence of God.

지금까지 경건적 해석학에 있어서 준비와 연구에 관련된 우선 사항들을 다루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또한 적용과 관련된 우선 사항들을 언급할 것이다. Having touched on the priorities of preparation and investigation, we should also mention the priorities of application in devotional hermeneutics.

### **3. 적용(Application)**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일에 몰두한다. 우리는 성경을 그저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수천년 전에 기록했던 생명이 없는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을 오늘의 우리를 위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룬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성취하는지를 더 잘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적용의 지적, 행위적, 감정적 측면에 관하여 말할 것이다. When we read the Scriptures in the presence of God, we're particularly devoted to applying the Word of

God as God intended. We don't treat the Bible as a lifeless object that mere mortals wrote thousands of years ago. On the contrary, we handle the Scriptures as God's Word living for us today. To help us gain a better sense of how we accomplish this, we'll speak once more of the conceptual, behavioral, and emotional dimensions of application.

지적인 측면에서 경건적 해석의 적용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자신과 인간과 나머지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개념에 영향을 주고 계시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조명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인간과 다른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승인하시고 향상시키시고 정정하시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이러한 정정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복안으로 훨씬 더 깊이 이끌려 가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On a conceptual level, devotional application focuses on how God is impacting our concepts of himself, humanity and the rest of creation through the Scriptures. As we seek the illumination of God's Spirit through intense prayer and contemplation of his Word, we'll find that the Spirit of God confirms, enhances and corrects our concepts of him, humanity and the rest of creation. And when we embrace these corrections with our whole hearts we'll find ourselves drawn ever further into the blessing of God's presence.

행위적 측면에서 경건적 해석의 적용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해 오던 모든 것을 겸손히 털어놓아야 한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분의 영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해야 할 행동을 승인하고 향상시킨다. 더 나아가, 의식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정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발견한다. On a behavioral level, devotional application focuses on how our behaviors are affected by the presence of God as we contemplate the Scriptures. When we come to Scripture, we must humbly lay bare everything we've done. And as we prayerfully draw near to God, his Spirit confirms and enhances our actions for future service to God. And beyond this, as we reflect on Scripture in conscious dependence on the Spirit, we find that he corrects and empowers us to turn to actions that are pleasing to God.

마지막으로 감정적 측면에서 성경에 대한 경건적 해석의 적용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 앞에서 성경을 읽는 것에 의해 우리의 태도와 감정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살피는 것을 수반한다. 그분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적당한 때에 후회, 비탄, 슬픔을 일으키신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도 하신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할 때 하나님과 사람들과 다른 피조물에 대하여 갖는 우리의 감정들이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아니면 성령님께서 원하실 때 그러한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 압도된다. 경우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임재에 비추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울 때 우리는 성경이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개념과 행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깊은 감정에 있어서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Finally, on an emotional level, devotional application of Scripture entails how our attitudes and feelings are affected by reading the Scriptures in the special presence of God. In his wisdom, God's Spirit brings regret, grief and sorrow when they are appropriate. God's Spirit also fills our hearts with joy, peace, and love. When we approach the Scriptures as the living Word of God, our emotions toward him, other people and the rest of creation can come upon us quietly. Or, as the Spirit wills, they can also fill our hearts so that we're overwhelmed by God's presence. Whatever the case, as we learn how to interpret the Scriptures in the light of God's nearness, we'll find that the Scriptures come alive and transform us, not only in our concepts and behaviors, but also in the depths of our emotions.

크루거(Michael J. Kruger) 박사: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단지 우리의 생각만을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성경을 연구하도록 격려할 때 즐겨 사용하는 것들 중 하나는 성경의 적용을 세 가지 부분 즉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라는 것이다. 지적 추구는 우리가 이 세 영역 중 하나 곧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성경을 적용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온 지성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길 원하신다. 그러므로 생각은 하나님께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 곧 우리의 감정적 생활, 온종일 우리의 기질 또한 하나님께 중요하다. 정말 우리의 감정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중요하다. 감정은 하나님께 충성된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중립적인 감정이란 것은 없다. 그런데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더불어] “행하는”

측면 또한 하나님께 중요하다. 우리가 성경을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우리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문제와 성경이 우리의 지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문제도 고려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그리드를 사용한다면, 실제로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평가를 제공한다. We have to recognize that when we study the Bible that the Bible is not asking us just simply to change our thinking. It's asking us to change our lives. And so one of the things I like to use when I encourage people to study the Bible is to think of the application of Scripture in three parts: think, feel, do. Intellectualism is when we only apply the Bible to one of those places — how we think. But God does want us to love him with all our minds, so thinking matters to God. But also how we feel matters to God — our emotional life, our disposition throughout the day. It matters to God what our feelings are. And feelings can be faithful to God, and feelings can *not* be faithful to God. There's no such thing as neutral feelings. But there's also the "do" aspect. When we apply the Scripture, God doesn't only want us to think about how it affects our emotions or affects our mind, but also how it affects our actions. And so if we use that grid — think, feel, do — it really provides a balance for how we think about the Bible.

— Dr. Michael J. Kruger

## V. 결론(CONCLUSION)

성경해석학의 서론을 다룬 이 강의에서 우리는 세 가지 주요 개념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로, 우리는 이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들을 몇 개 살펴보았다. 둘째로, 우리는 과학적 해석학이 그것의 엄정성과 논리적 일관성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경을 읽는 경건적 해석학이 과학적 해석학과 맞먹는 힘이 있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살펴보았다. In this introduction to biblical hermeneutics, we've

focused on three main concepts. First, we explored some of the basic terminology we need to orient ourselves to this subject. Second, we saw that scientific hermeneutics are important for their rigor and their logical consistency. And third, we saw that devotional hermeneutics — reading Scripture in God’s presence — is a critical counterbalance to scientific hermeneutics.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관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우면 모든 종류의 새로운 통찰력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위한 길이 열린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는 모든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에 대한 표준을 제시한다. 우리는 다음 강의들에서 더 많은 자세한 사항들을 탐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과학적 해석학과 경건적 해석학에 바치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가를 깨달을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새로운 길들이 발견될 것이다. Learning more about interpreting the Scriptures opens the way for all kinds of new insights and blessings from God. The Old and New Testaments set the standards for everything we believe, everything we do and everything we feel as God’s faithful people. And as we look into many more details in lessons to come, we’ll come to see how essential it is to give ourselves both to scientific and devotional hermeneutics. As we do, we’ll discover new paths of faithful service to God in every dimension of our lives.